한국교회의 선교 위기를 대비하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ice Preparing for Missionary Crisis of Korean Churches

이 복 수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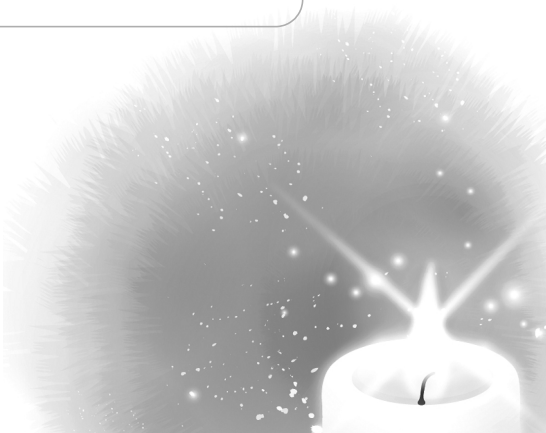
목 차

I. 들어가면서 | 300

II. 한국교회 선교의 현실과 관련된 우려의 요소들 | 301

III. 한국교회의 선교 위기에 대한 대안전략 | 309

IV. 나가면서 | 335



요약

한국교회의 선교 위기를 대비하는 방안 연구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는 이제 최절정에서 다소 주춤한 상황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선교의 미래가 현재의 상태와 다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선교를 수행하는 도구로서 교회가 성장을 멈춘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나아가서 선계선교를 주도해 왔던 나라들에 대한 역사 역시 어느 한나라가 지속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현재의 상황보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해외선교를 수행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별히 장기 사역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는데 따르는 인력적인 요소와 재정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국내에 이주민 선교, 전문인 선교, IT를 활용한 선교, 그리고 단기 선교사역자들을 통한 선교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상의 4가지 방안들은 선교사의 인력적인 요소는 물론 재정적으로도 절감하는 저비용의 고효율성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를 더욱 굳건하게 대비하는 토대가 되기를 소망한다.

A Study on the Device Preparing for Missionary Crisis of Korean Churches

주요어

교회성장, 이주민 선교, 전문인 선교, IT를 통한 선교, 단기 선교

Abstract

A Study on the Device Preparing for Missionary Crisis of Korean Churches

Prof. Dr. Lee Bok Soo

The Korean Church's mission for foreign countries seems to be more or less at its peak and in a situation of stagnation. This situation may be linked to another possible crisis in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s mission. This precognition i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has stopped during the last 10 years. On the other hand, it has also been foreseen through the history of Christian world mission that there has not been any single country which has continually kept its leading position in Christian mission. That is why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Church to formulate a plan with which the Korean Church can keep its missionary works through any possible difficulty in the future. The writer of this thesis proposes four important elements: migrant mission, professional mission, mission through IT, and short term mission. These elements will especially be helpful when the Korean Church encounters problems within the limitation of missionary manpower and financial resources.

Keywords | Church Growth, Migrant Mission, Professional Mission, Mission through IT, Short Term Mission,

I. 들어가면서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는 이제 최절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미 열기에 있어서 식어 가는 느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선교단체와 지도자들 가운데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에 이러한 진단이 정확한 상황에 근접해 간다면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는 서서히 위기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선교가 열정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나 최상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음의 단계를 미리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선교의 흐름을 그려보아도 구라파에서 시작된 선교가 영국으로 건너가 전성기를 이루면서 미국대륙으로 흘렀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건너와서 한국이 대표적으로 전성기를 누리는 상황이지만 역시 이 흐름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한국교회 자체가 성장이 멈추어진 상황이기에 만일 다시 한 번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면 선교 역시 최상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진단해도 문제가 없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를 위한 방안들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는 이러한 대비를 가지는 것은 현재 최상의 상태를 더욱 계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급격한 추락을 대처하는 방법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미래의 위기를 대처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를 포함하면서 어려움으로 다가 서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효과적

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한국교회의 선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선교학자들은 물론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단체를 이끄는 운영진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전체가 한국교회의 선교에 닥칠 수 있는 위기들을 대처하는 일에 함께 믿음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다. 본 논문은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될 장기 선교사역자의 인력 수급의 문제와 재정적인 한계의 요소들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선교행정에 관한 요소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힌다.

Ⅱ. 한국교회 선교의 현실과 관련된 우려의 요소들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church as mission)이다.[1] 다시 말하면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로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2]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의하여 설립되고,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며, 선교를 통하여 지상에서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가 지속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3] 따라서 한국교회의 선교는 한국교회가 수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가 한국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일 때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 역시 직결되는 관계를 가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성장이란 분명히 수적인 개념만일 수는 없지만 수적인 개념을 배제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힘 있게

1) Roger E. Hedlu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5), 199.
2) Darrel L. Guder, (ed.), Missiob Church :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Grand Rapids : Eerdmans, 1998), 9.
3) 이복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고찰", 고신신학, 제10호, 고신신학회, 2008, 82-83.

성장할 때 한국교의 선교가 힘 있게 전개될 수 있는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논리적 진행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한 파악은 한국교회의 선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선교는 기독교 세계 선교의 흐름을 파악 할 때도 미래의 위기를 예견 할 수 있는 것이다.

1.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춘 경향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창자이시지만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수행하신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선교는 한국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자원이 투자되는 만큼 추진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지속하여 성장하면 선교를 지속하게 되지만 한국교회의 성장이 약화되면 선교 역시 약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미 서구교회 역사에서도 나타났던 사실이다.

지난날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이었던 서구에 나타난 분명한 현상은 그리스도인의 수가 격감했으며, 지금도 감소하는 상황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해마다 180만 명의 인구가 기독교를 떠나고 있다.[4]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교회까지도 현재의 경향으로 나가면 2050년까지 크리스천의 6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다.[5] 이러한 경향으로 "교회의 동적인 중심은 북대서양 국가들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좀 더 새롭고 생동적인 교회들로 이동하고 있다."[6]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서구교회의 선교는 약화되어 왔고

4) Peter Cotterell, "The Church in Europe",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13(1), 1989, 37.
5) 방동섭,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10), 309.
6) 하워드 A. 스나이더 저, 박이경, 김기찬 역, 21세기 교회의 전망(서울 : 아가페출판사, 1993), 8.

미국교회의 선교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한국교회 역시 성장의 정체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모트의 말대로 한국은 피선교국 가운데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과는 달이 20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그 성장의 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 숫자가 멈추어 버렸다."[7] 1995년도 독일에서 출판되는 한 선교잡지도 한국교회의 성장 중단에 대한 기사를 크게 다루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사람을 잡아당기는 흡인력(pulling factors)도, 사회 환경이 사람들을 교회로 밀어붙이는 추진력(pushing factors)도 사라졌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8] 따라서 이미 지난10여년의 세월 가운데 감소의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매 10년 단위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인구센서스의 1985, 1995, 2005년의 현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근 20년 사이의 총인구 대비의 종교인 수와 개신교도의 현황[9]

구분	1985년		1995년		2005년	
	인구	총인구대비	인구	총인구대비	인구	총인구대비
총인구	40,419,665	100.0	44,553,710	100.0	47,041,434	100.0
종교인구	17,203,296	42.6	22,597,824	50.7	24,970,766	53.1
개신교	6,489,282	16.1	8,760,336	19.7	8,616,438	18.3

7) 손윤탁,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 한국 선교와 신학 교육, 20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2010년 한국대회논문집 7(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119.
8) 전호진, "성장이 중단된 한국교회, 선교의 새 모델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목사 계속교육원, 제1회 여름목회자 아카데미 자료집, 1996, 274.
9) http://cafe358.daum.net/_c21_/bbs_print?grpid=IDOIb&mgrpid=&fldid=8XLw&dat.... 2012-07-27.

표 1에 의하면 개신교는 1985년 6, 489, 282명에서 1995년에 8, 760, 336명으로 227만 명이 증가하였다. 한국교회가 꾸준히 성장해 나간 모습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2005년에 이르러서는 8, 616, 438명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에 14만 명 이상이 감소한 통계로 나타났다. 더욱이 아래의 표 2에 의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감소의 폭이 가장 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2) 최근 20년 사이의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증감 현황[10)]

	1985년	1995년 (증감)		2005년 (증감)		20년 증감
종교인구	42.6	50.7	8.1	53.7	2.4	11, 1
개신교	16.1	19.7	3.6	18.3	-1.4	2.2
불교	19.9	23.2	3.3	22.8	-0.4	2.9
천주교	4.6	6.6	2.0	10.9	4.3	6.3

따라서 한국의 개신교는 성장의 정체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개신교의 미래에 역시 적신호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적지 않는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면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예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미래에 한국인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경향을 묻는 설문에서도 개신교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11월 19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2009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를 가졌는데 기독교의 성장전망은 어둡게 나타났다. 발표의 내용 가운데 비종교인들의 회심 가능성을 파악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 Ibid.

> 종교가 없는 100명 중 89명 '종교 가질 생각 없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혹 '있다'고 응답한 20명은 가톨릭(8명), 개신교(6명), 불교(5명) 순이었다. 그렇다면 특별한 회심 계기가 없는 이상 비종교인의 회심이 1970년대나 1980년대 이농과 도시화 시대처럼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다. 만일 그 20% 중 절반(10%)이 종교를 가지더라도 개신교로 올 가능성은 전체대비 3%미만으로 가정하고, 이 역시 종교 선택을 가정한 답변이므로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11]

이와 같이 국민들의 미래 종교편향성에도 개신교의 성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감소의 경향에 추가하여 미래의 경향 분석까지 이중적으로 확인할 때에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에 대한 전망은 다소 밝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현상으로는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현상도 미래의 경향파악에 추가시켜 볼 수 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구성요소가 피라미드형이었다. 연령층이 낮은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많고 노년에 이를수록 수적으로 적은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은 역 피라미드형으로서 지난날과는 반대의 형태이다. 따라서 교회마다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감소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인용된 독일교회의 한 선교잡지에서 한국교회는 흡인력도 추진력도 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현상과 더불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남으로 한국교회 역시 독일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당들이 텅 비게 될 날이 올 것을 예견한 바도 있다.[12] "얼마 전 KNCC 청년선교정책토론회에서 정해동 목사

---

11) http://blog.naver.co./PostPrint.nhn?blogId=inyouwithyou&logNo=10074460284(2012년 7월30일인용).

도 이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청년층의 개별화, 그리고 긍지를 심어주지 못하는 교회가 청년층의 이탈을 부추겼다'며 '청년층뿐만 아니라 유치부, 초등부도 감소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3]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 전체 속에 거의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학적인 분석 역시 국민소득이 1만 불 이상이 되면서 교회성장이 멈춘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서구의 교회들이 겪었던 현상이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인 경향의 적용이기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어려울 때 어디엔가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덜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사회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서 더욱 향상해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는 마음을 덜 가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종합해 본다면 아직 한국교회가 해외선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에 있어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같이 한국교회의 성장이 주춤하면서 선교적인 관심과 열기는 다소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들도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성장이 반드시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것만 아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현상을 무사할 수도 없음을 알고 대비하는 것 역시 신앙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

12) 전호진, "성장이 중단된 한국교회, 선교의 새 모델은 ?", 247.
13) http://www.kcnp.com/new/viewer.asp?n=07

2 세계선교 흐름의 측면에서

세계선교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흐름의 방향이 있었다. 피선교지역과 관련한 역사에도 흐름이 있어서 연안지역 선교시대, 내륙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선교 시대로 구분한다. 연안지역 선교시대는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개척한 시대이었는데 1792년에서 1910년까지 포함시킨다. 내륙선교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1865년에서 1980년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시대는 카메룬 타운센드(Cameron Townsend)와 도날드 매가브란(Donald McGavran)에 의해 1934년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14] 이와 같이 피 선교지역에 대한 흐름이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선교의 진행과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나라들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독교의 선교는 분명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 진행했다.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선교는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져서 동방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하여 흐르고 서방은 로마를 중심으로 구라파와 영국으로 건너 흐르며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어졌고 계속하여 아시아로 넘어와서는 한국교회가 선교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선교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스케치할 수 있다.

> 주님 이후 1000년 동안은 기독교의 중심이 중동아시아에 있었다.
> 그 후 또 다른 1000년은 서구 유럽이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 그리고 최근 까지 북미주가 기독교 선교 활동의 주역을 맡고 있었다고

---

14) Ralph D. Winter, "Four Men, Three Eras, Two Transitions : Modern Missions",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ed.), Mission Perspectives, 정옥배 역, 미션 퍼스펙티브 (서울 : 예수전도단, 1999), 220, 223.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년 동안은 서구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비서구 선교사들의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15]

이러한 흐름을 두고 토마스 왕(Thomas Wang)은 두 번째 개최되었던 로잔 대회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의 중심이 서구에서 동방으로,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밝혔다.[16] 심지어 레리 패이트(Larry D. Pate)는 2000년이 되면 비서구 선교사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의 55.5%를 차지할 것을 예측하기도 했다.[17] 따라서 "복음은 한 곳에서 꾸준히 전파되며 계속하여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이 부흥하면 한 곳이 쇠퇴하는 식으로 돌고 도는 선교역사를 기록했다."[18] 이러한 세계선교의 진행과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들도 역사의 흐름을 따라 강하게 두각을 나타냈다가 그 위치를 넘겨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한국교회는 해외에 25, 000여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사 파송 제2위 국가에 올라 서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한국교회가 성장의 정체에 놓인다면 그러한 위치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실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마치 믿음이 없는 소치라고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주소와 지난 날 선교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전개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예측하는 것은 반드시 신앙의 문제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가운데도 기독교가 성장의 경향을 타고 있으며, 주변의 중국교

15) 최수일, 간추린 기독교 선교 역사(서울 : 예영커무니케이션, 2003), 245.
16) Ibid, 246.
17) Larry D. Pate, "The Changing Balance in Global Miss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New Haven : The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Apr., 1991), n.p.
18) 김승연, 유럽교회는 어디로 갔는가?(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63.

회만 해도 어려운 체제 가운데서나마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한다면 한국교회의 선교는 계속 상승하는 최상의 위치를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Ⅲ. 한국교회의 선교 위기에 대한 대안전략

한국교회의 선교에 위기를 감지한다면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치중하고 있는 사역들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을 예측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역들을 다소 변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1. 이주민 선교

1) 이주민의 현황

한국교회의 선교 위기란 계속하여 해외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현재의 상황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과 함께 해외에서 이주하여 오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은 해외선교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이주민은 도시와 시골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다양한 요인으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다. 먼저 이주민들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이주민을 위한 선교는 한국교회에 허락하시는 선교의 새로운 장이 아닐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 외국인 이주민의 전체적인 현황[19)]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주민전체등록인구		49, 092, 419	49, 355, 153	49, 593, 665	49, 773, 145
외국인주민	총계	722, 686	891, 341	1, 106, 884	1, 139, 283
	남	394, 720	482, 870	584, 697	586, 481
	여	327, 966	408, 471	522, 187	552, 802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	-	925, 470	920, 887
외국인근로자		259, 805	437, 727	575, 657	558, 538
국제결혼이주자		87, 964	102, 713	-	-
결혼이민자		-	-	125, 673	125, 087
유학생		-	56, 279	77, 322	80, 646
재외동포		-	-	43, 703	50, 251
기타외국인		276, 608	171, 104	103, 115	106, 365
한국국적을취득한자		-	-	73, 725	96, 461
혼인귀화자		38, 991	41, 672	41, 417	56, 584
기타사유로국적취득자		15, 060	23, 839	32, 308	39, 877
국제결혼가정자녀		44, 248	58, 007	-	-
외국인주민자녀		-	-	107, 689	121, 935
외국인부모		-	-	4, 205	6, 971
외국인-한국인부모		-	-	88, 485	98, 531
한국인부모		-	-	14, 999	16, 433
외국인주민세대수		-	-	186, 566	217, 094

전체적으로 2010년 말 현재 국내의 이주민은 1, 139, 283명으로 이 통계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1년 6월 현재로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166, 518명으로 통계된 것을[20)] 합하면 국내의 외국인 이주민들은 1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수치는 당연히 해외 선교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주자들의 이주 원인에 따라 분류해 보면 근로

19) 통계청 자료(통계청 자료로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2012년 7월 31일 인용).
20) 고용노동부 자료, 2011년 6월 현재.

자 이주민이 558, 538명, 결혼 이주자 125, 087명, 유학생 80, 646명, 혼인 귀화자 56, 584명 등으로 다양하다.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도시 근교의 산업체 지역에 많으며, 결혼 이주자들 중에는 전국의 시골 지역에 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민을 위한 선교는 전국교회가 어디에서든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2)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선교학적인 타당성

선교학적으로도 이주민 선교의 타당성은 확고하다. 먼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들을 위한 배려에서 발견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회중에 포함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 시에 이미 혼합된 다수 민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1]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동화되었던 집단들이 있었다.[22] 계속하여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까지도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일이 허용되었으며(신 23:7-8),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인은 유월절과 번제나 희생을 드릴수도 있었다(민 9:14, 레 17:8).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피터스(George W. Peters)는 구약의 계시 자체가 폐쇄적인 민족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도 환영하며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23]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배려를 나타내신 것은 이주자들도 선교의 대상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주민을 위한 선교는 또한 구심적 형태의 선교란 점에서도 선교학적인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선교를 구심적(centripetal)인 형태와 원심적(centrifugal) 형태로 분류하여 연구한 학자는 순드클러(Bengt Sundkler)이다. 구심적인 선교로는 주로 구약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21) John Bright, The History of Israel(London : SCM Press, 1959), 120
22) Ibid, 123.
23)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Chicago : Moody Press, 1972), 114.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형태이고, 원심적인 선교는 주로 신약의 형태로서 초대 교회가 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표현되었다.[24] 따라서 국내의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는 기독교 선교의 형태에서 구심적 선교에 해당하는 선교학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선교학적 타당성은 선교의 포괄적 혹은 통전적 개념과도 관련된다. 전통적으로 선교는 해외에 복음전하는 개념으로 지켜져 왔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전도의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선교신학의 발전에 의하여 선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인 개념에 의하면 선교란 복음전도와 섬김 혹은 봉사의 사역들을 함께 수행하는 전체적인 사역이다. 케인에 의하면(J. Herbert Kane) "복음의 구속적인 선포"의 활동을 전도로,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개척, 의료봉사, 교육사업, 농업사업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선교로 이해하였다.[25]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 역시 선교를 복음전도와 세계 속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함께 어우르는 것으로 강조했다.[26]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도 이미 선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선교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전도의 중심적 사역과 더불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봉사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포괄사역"[27]임을 밝힌바 있다. 포괄적인 선교의 개념에 따르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이야 말로 선교사역

24) Johannes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Grand Rapids : Eerdmans, 1987), 59.
25) J. Herbert Kane, The Christian World Mission : Today and Tommorrow(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1), 141.
26) J. D. Douglas, (ed.), The Lausanne Covenant, Let the Earth Hear His Voice(Minnesota :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4.
27) 이복수, "선교에 대한 이해 재고", 고신신학, 창간호, (부산 : 고신신학회, 1995), 200.

자체임을 발견할 수 있다.

3) 이주민 선교가 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강화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고비용의 선교를 저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효율성도 높일 수 있어서 위기를 대처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1) 이주민 선교는 언어와 문화의 장애들을 다소 해결하는 효율적인 선교이다. 해외선교에는 우선적으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항상 남아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경험하는 현상은 문화충격(cultural shocking)이다. 문화차이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충이다. 언어를 배운다고 해도 결국은 현지인의 수준에 이르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장벽은 사역에 장애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이주민 선교는 스스로 우리의 지역에 들어온 사람이기에 문화충격의 흐름은 역방향, 즉 그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장벽이 높아지고 우리가 느끼는 장벽은 낮아지는 입장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주민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주민이 다른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거나 복음을 받은 이주민들을 본국으로 역 파송하는 선교를 펼친다면 이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해결하는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 문창선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주 근로자는 1억2천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10/40창에 속한 출신들로서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에 분포하여 있어서 역 파송을 할 수 있다면 10/40창의 지역 선교에 효율적이라고 했다.[28] 이는 분명히 선교의 효율성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의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

28) 문창선, “비정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역 파송”, 박찬식, 정노화 편집, 21C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344.

(2) 이주민 선교는 해외선교의 고비용을 저 비용화 하는데 유익하다. 해외에 계속하여 선교사를 늘여 나가는 일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따른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재정문제는 분명이 한계상황을 예측해야 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 선교는 "찾아가는 선교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통한 선교"이다.[29] 가는 선교보다는 오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서구의 국가들 가운데도 이러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891년에 ACMI(Association of Christians Ministering among Internationals)를 설립하여 북미의 유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 교회의 외국인 사역, 교단의 외국인 사역, 그리고 선교단체들의 사역을 네트워크 했다.[30] 독일에서도 1985년 함부르그 복음주의 독일교회와 외국인 교회들이 연합으로 하파(HAFA : Hamburger Arbeitkreis für Ausländer)라는 선교 단체를 결성하여 도시 내에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결의를 하였다.[31] 한국교회 역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강화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성의 선교를 시행함으로 선교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전문인 선교

복음전도에 주로 강조점을 두는 전통적인 입장의 선교관은 전문인 선교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경향에 의하면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교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용하면 전문인 사역도 기독교 선교에 중요한 전략이

29) 유해근,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찬식, 정노화 편집, 21C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53.
30) 이순홍, 지교회의 자국 내 외국인 선교전략(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09), 78.
31) 김승연, 21세기 한국교회 어디로 가나?(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224.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문인 선교는 복음주의나 에큐메니칼 모두 아우르는 선교현장 중심의 프로페셔널 즉 전문인 선교를 실천하는 것이 통전적 선교이다."[32] 나아가서 선교(mission)와 선교들(missions)을 구별함에 있어서도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그의 위대한 목적을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선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서의 다양한 활동들로 설명하고 있다.[33] Missions의 개념이 이러하다면 전문인 선교란 기독교 선교에 확고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는 토대가 놓인다.

더욱이 전문인 선교가 부각되어야 하는 요인들로는 한국교회가 해외에 목회자 선교사들을 증가시키려면 인적자원의 충당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현장의 문이 점점 닫혀가는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전호진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의 증가에 대한 이유를 해외 선교의 현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선교사의 요구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 권력은 기독교 선교사를 거부하고 대신에 경제나 개발 분야의 사람은 입국을 허용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세계 선교는 평신도 선교사가 날로 증가되어 전체의 3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최근 평신도 선교사들이 날로 많아지는데, 이것은 바람직하거니와 성경적이라고 본다.[34]

---

32) 김태연, "1910년 - 2010년 현대 에큐메니칼 선교의 흐름 평가 : 자비량/ 전문인 선교의 입장에서", 한국 선교와 신학 교육, 20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2010년 한국대회논문집 1(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317.

33)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Grand Rapids : Zondervan, 2010), 25.

34) 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서울 : 성광문화사, 1993), 209.

이상과 같은 선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인 선교를 더욱 강화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선교 위기를 대비하는 방안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

1) 전문인 선교사의 용어와 개념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용어가 다양하다. (1) '텐트메이크(Tentmaker)'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도행전 18:3에서 유래하였다. 서양에서도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2) '직업선교사' 로서 일반직업과 함께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어로 'Bivocational missionary'로 표현하며 일본의 데쓰나오 야마모리가 직업의 전문성과 선교의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사람으로 부각시킨다. (3) '자비량 선교사'로서의 표현인데 '턴트메이크'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으로서 'Self-supporting missionary'로 번역하기도 한다. 바울이 텐트메이크로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면서 사역을 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용어는 주로 크리스티 윌슨(Christy Wilson)이 '텐트메이크'라는 단어와 병행하여 사용하다. (4) 텐트메이크가 때로 '평신도 선교사(Lay missionary)'로서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신분상 목회자 선교사와 대조되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평신도만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전문인 선교사(professional missionary'로서도 표현되는데 이 용어 안에는 직업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자비량선교사의 뜻이 모두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명칭이다.[35]

특별히 1994년 USAT(미국전문인 선교협의회)가 채택한 정의에 의하면 "전문인 선교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소유하고 타문화권에서 접근하여 거주하면서 현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데 최우선을 두며, 가능한 곳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36]

---

35) 민요셉, "전문인 선교", 세계선교의 비전과 협력(서울 : 도서출판 횃불, 1995), 163-167.

특별히 여기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직업적 전문성의 사역은 선교의 수단인지 아니면 그 차체가 선교인지의 문제는 2004년 로잔 선교포럼에서 전문성을 활용하는 자체를 선교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일보 한 것을 볼 수 있다.[37] 우리나라에서는 자비량보다 전문인으로 번역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자비량선교로 표현될 때 선교사역의 후원과 관련한 문제가 등장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라고 하면 "전문적 기술 혹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타 문화권에 생활하며 선교하는 것"[38]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문인 선교사의 명칭들이 다양하지만 특별히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사실은 "전문인 선교사는 '자비량'과는 관계가 없으며, 평신도이건 목회자이건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선교지로 파송되어 '선교의 궁긍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선교사이다."[39] 따라서 전문인 선교사는 반드시 목회자 선교사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문인 선교사는 반드시 자비량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회자 선교사로서 복음전파와 교회개척 사역만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기가 용이하고, 또한 선교를 위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36) Ibid, 167에서 재인용.

37) 신경규, "전문인 선교의 신학과 전략", 복음과 선교, 제11집(고양 : 올리브나무, 2009),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29.

38) 김한성, "21세기 지구촌 기독교의 선교적 특징", 선교와 현대 사회, 20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2010년 한국대회논문집 4(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49.

39) 신경규, op.cit., 200.

2) 전문인 선교사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교회가 파송한 전문인 선교사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 나간 제3세계의 텐트메이커들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한국에서도 해외에 나가 텐트메이킹 선교를 하는 크리스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의사, 간호사, 건설업체 직원, 무역업체 직원, 태권도 사범, 원양어업 종사자, 농업 전문가, 임업 전문가, 유학생 등, 수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이들 가운데 텐트메이킹 선교를 하는 크리스천들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40]

한국교회가 늦게나마 전문인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감지한 상태에서 상당한 계획도 세웠는데, TARGET 2030목표로 선교사를 10만 명, 그리고 MT 2020목표로 자비량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획을 세웠다.[41] 이러한 계획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아직도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이다.[42] 이러한 결과로 교회가 전문인 선교사를 선교사로 인정하는 면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전문인 선교사의 파송과 후원에도 인색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 한국교회의 선교 위기를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대처하는 토대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

40) J. Christy Wilson, Tent Maker, 김만풍 역, 텐트메이커(서울 : 순출판사, 2003), 191.
41) 박영환, “한국선교의 대안적 방안으로 한국화(Korbalisierung)의 한국 선교”, 한국 선교와 신학 교육, 20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2010년 한국대회논문집 7(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46.
42) 민요섭, op.cit., 172.

3) 전문인 선교가 한국 선교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되는 이유

(1) 전문인 선교는 우선적으로 공식적인 선교사 신분으로 갈 수 없는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기에 선교사의 분산에 효율적이다. 해외 선교사가 한 곳에 많이 모이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갈수록 제한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

(표 4) 선교사 입국 금지 국가 수[43)]

연도	주요선교행사	금지국가 수	인구, 비율 등
1974년	제1차 로잔대회 시	38개국	
1989년	제2차 로잔대회 시	86개국	
1995년	GCOWE 국제대회	119개국	38억(세계인구의65%)
2000년	AD 2000 시점		전도대상의 83% 이상
2009년	제3차 로잔대회 전	148개국 중에 64개국(심각)	49억(세계인구의 70%)

이처럼 목회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갈수록 제한되기 때문에 아세아의 경우 필리핀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케냐에 많이 모여 있게 되기도 했다. “현재 선교사의 분포는 전체 선교사의 84%가 이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16% 정도가 복음을 기다리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편이다.”[44)] 나아가서 목회자 선교사가 머물 수 없는 곳에서 조차도 전문인 사역자들은 현지 사람들로부터 보다 좋은 매력과 선망을 가진다. 그 이유는 그가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 나라의 건설에 기여하기 때문이다.[45)] 따라서 전문인 선교사는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더욱 다양한 분산이 가능하다. 선교학

43) 신경규, op.cit., 194.
44) Ibid, 194-195.
45) J. Herbert Kane,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 신서균 역, 기독교 선교이해(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499.

자 케인(Herbert Kane)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많은 나라들이 종래의 선교방식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배척함에 따라 전문인 선교 사역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선교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현시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46]고 말한바 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만 들어가게 되면 지역적으로 모여 있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땅 끝까지의 선교사역은 지연되면서 고비용의 저 효율성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단계적으로 부족하여 가는 목회자 선교사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다. 세계선교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선교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날 서구의 국가들은 선교 이후의 국가들로서 선교사들의 파송이 격감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한국교회 역시 점차로 예외 일수 없는 사안이다.

> 세계의 인구는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서 2006년도 2월로 65억이 넘었고 전문가들은 25년 후인 2030년경이 되면 90억 이상으로 늘어나리라고 예상한다. 이와 같이 세계 인구는 급증하는데 기독교 신자의 수는 인구의 자연 증가의 속도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형편에서 세계선교는 목회자 선교사들 만으로서는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47]

이와 같이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하여 목회자 선교사를 확보하는 일이 부족해 가는 상황에서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은 미래 선교의 어려운 상황을

---

46) 민요섭, op.cit., 161.
47) 남후수, 미래의 세계선교 전략(서울 : 프리칭아카데미, 2008), 97-98.

대비하는 방안이 아닐 수 없다.

(3) 전문인 선교는 저비용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이 목회자 선교사보다는 저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전문인 사역자는 전문 직종으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선교에 위기를 예상한다는 것은 선교사의 수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파송하는데 따르는 재정적인 한계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저비용의 전략은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는 것으로 전문인 선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제문제도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많은 교단 선교부, 독립선교회, 지역교회의 선교 책임자 및 목회자들과 선교신학자들은 국내 환율상승으로 인한 선교지원금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사가 어느 정도 현지에서 자비량 할 수 있으면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48] 크리스티 윌슨(J. Christy Wilson) 역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지적을 하였다.

> 또한 물가가 올라가서 정규선교사들이 생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오를 때, 텐트메이커들을 격려하는 것이 더 많은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 줄 여분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재정 압박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텐트메이커들이 정규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직접 도울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줄 것이다.[49]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국제선교부장

48) 신경규, op.cit., 195.
49) J. Christy Wilson, op.cit., 100.

탐슨 브라운 역시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최근에 우리는 선교 지원자들을 지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들은 봉급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부는 몇몇 경우들에 있어서 여행 경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대학이나 기술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로서 해외에 나가 한두 해 정도 일하고자 자원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해외의 일반 대학교나 기관들에서 교수나 직원으로 일하여 받는 봉급으로 적어도 선교비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선교사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50]

따라서 다가올 선교의 위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전문인 선교는 대안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3. IT를 통한 선교사역 확대

현대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시대에 완전하게 돌입하였다. 특별히 정보기술은 "컴퓨터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만남으로 이루어진"[51]것으로 전 세계가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물론 정보기술의 매체가 모든 나라에 동일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 아직도 피선교지 국가나 종족들 가운데는 뒤처진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향상되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IT를 통한 선교는 복음전파에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선교사 파송에 대한 한 부분을 대신할

---

50) Ibid, 139에서 재인용.

51) 최인식, "21세기멀티미디어 시대와 교회", 김석년 편, 21세기 한국교회를 가슴에 안고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181.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1) 복음전파의 방법은 시대상황을 따라야 하는 원리

"그리스도는 특수문화인 유대 문화를 입고 오셨지만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시며 초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주님"이시다.[52] 따라서 기록 당시의 상황에 "모든 변이 들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약에서 신학적인 형성이 여러 가지 풍부한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도적인 전통은 근본적으로 단 하나뿐이다."[53]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 자신의 문화에 의미가 있도록 해석해야 할 엄연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만 "복음은 단 하나요,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54] 복음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기록되었지만 어떠한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선다고 해도 불변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 방법은 문화적인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방안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부산물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간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55]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적 계시와 현대적 문화 간의 참된 전달"[56]을 위해서 복음전파의 방법은 시대적인 상황을 외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복음전파의 방법에서 현대의 문화적인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요소는

---

52) 정기묵, "선교의 대상으로서 사이버 자아", 한국연합선교회 편, 선교와 현대사회(19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 논문집 4), (서울 : 미션아카데미, 2011), 256.

53) John R. 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London : Falcon Books, 1975), 41.

54) Ibid, 42.

55) Stan Nussbaum, A Reader's Guide to Transforming Mission, 최형근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가이드 북(서울 : CLC, 1910), 83.

56) John R. W. Stott, op.cit., 42.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들 가운데 부상되어 온 것은 사이버 공간의 네트워크화이기 때문이다.[57] 청중이 참여하는 대중문화 역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58]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심지어 설교를 통한 복음전도의 방식은 신지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요소이지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만을 한다면 전파에 있어서 일방통행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홍수 같은 설교의 메시지 혹 방송으로 문서로 또는 개인 전도로 하는 노력들 모두가 전하는 사람의 일방 통화식으로 되고 말았다. 상대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로 생각한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말 할 것도 없이 충실한 메시지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청취자 중심(audience-centered)이어야 한다.[59]

목사의 설교를 통한 선포는 또한 자칫하면 "안락의자에 앉아 탁상공론하는" 사람으로서 "편향성 전달 방법(program orientation)"에 메일 수 있는 것이다.[60] 이상의 지적들은 설교의 무용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불변하되 복음전달의 방법은 계속적인 개선과 새로운 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역사적 사명인 커뮤니케이션 선교(communication mission)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

57) 전석제, "포스트모던 문화와 선교전략", 한국연합선교회 편, 선교와 현대사회 (19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 논문집 4), (서울 : 미션아카데미, 2011), 76.
58) Ibid, 78.
59) 제임스 F. 엥겔, 우리버트 H. 노튼 저, 최한구 역, 매스컴 시대의 선교전략(서울 : 신망애출판사, 1987), 24.
60) Ibid, 31.

아야 하겠다."[61]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이미 선교에 다양한 매체의 도입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하여 첨단 IT기술의 도입의 방법으로 인터넷의 활용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원격전달을 수행할 수 있어서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쉬프팅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62]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을 통한 원격 선교의 필요성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세계가 범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을 필수로 하는 분야는 정치, 경제, 산업, 연구, 오락, 취미, 교제, 정보조회, 지식획득, 홍보, 사무처리, 쇼핑, 선교 등 다양하다."[63] 이러한 다양성을 지닌 매체로서 인터넷을 통한 선교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

먼저는 최상의 소통수단이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부상했다. 2005년 5월13일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산업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한 바 있다.[64] 인터넷의 활용이 어느 나라보다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 상태이다. 필자가 구라파의 여러 나라와 대양주,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우리나라만큼 용이하지 않음을 경험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태어나서 기어 다니면서 이미 인터넷을 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다른 나라에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

61) Ibid, 47.
62) 박요섭, "유비쿼터스 시대와 목회환경",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라(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163.
63) 윤완철, "과학기술 시대와 교회",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라(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122.
64) 이영제, "인터넷 선교", 강승삼 편,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 전방개척선교(서울 : 한선협, 2005), 364.

발전할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영상매체의 활용은 젊은이들 자신의 "생체리듬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세대이다."[65]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하나의 실재적인 공간이" 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자 사람이 만남과 삶을 영위하는 곳이다."[66] 사이버 공간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의 대위임령은 사이버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67] 더욱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복음전파를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최상의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의 활용은 또한 현장감이 있는 소통의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취하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수신자 중심의 방법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심으로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수용자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68]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현장감이 있는 방법을 함의하는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보며 그들의 문화를 활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사용은 현시대적인 상황에서 가장 현장감이 있는 선교의 매체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서 인터넷을 활용은 세계적인 소통의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인류 자신이 멀티미디어로써 이 지구 안팎을 거미줄 같은 전자통신망으로 얽혀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멀티미

65) 김연종, "영상매체와 그리스도인", 총신대학교 부설 한국교회문제연구소 역음, 한국교회의 갈 길과 교회문화(서울 : 여수룬, 1996), 168.
66) 정기묵, op.cit., 235.
67) Ibid, 256.
68) Ibid.

디어 문화권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69] 특별히 인터넷이 가지는 장점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인터넷이 연결된 전 세계에서 상용이 가능하며, 둘째는 멀티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기에 단순한 테스트 위주에서 벗어나 음성과 사진 동영상을 전달할 수 있으며, 셋째는 쌍방향 네트워크가 가능한 것이다.[70] 이러한 이유에서 인터넷은 세계적인 최상의 소통수단이 아닐 수 없다.

3) 인터넷을 통한 선교가 한국선교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되는 이유

(1)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선교 현장의 사람들과 최상의 소통을 이룩할 수 있다. 선교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은 "지리적인 한 대륙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71]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직접 만나거나 방문하지 않고서도 실시간의 직접 대면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고 복음의 제시나 교육에 있어서도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보다 더 감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72] 따라서 해외선교를 위한 활용은 다양할 수 있다. 이영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활용을 제안한바 있다 : 선교사 홈페이지와 클럽으로 활용, 선교단체나 교회의 홍보매체로 활용, 선교정보를 수집하여 취합하는 통로로 활용, 복음을 전하는 사이트 개발로 활용, 선교소식을 다루는 사이트로 활용, 선교연합과 협력을 위한 활용.[73]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선교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의 선교를 수행하는

69) 최인식, op.cit., 198.
70) 이영제, op.cit., 370.
71) 박요섭, op.cit., 171-172.
72) Ibid, 172-173.
73) 이영제, op.cit., 372-375.

원격선교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2) 피선교지의 국가나 종족의 언어와 문화를 적용시킨 콘텐츠를 제작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원격선교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개인 혹은 개교회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회가 연합하거나 혹은 교회가 선교단체와 그리고 선교단체들 간에 협력하여 피선교지 국가나 종족에 속한 사람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그들의 언어와 표현방식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콘텐츠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피선교지역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하게 되면 원격선교는 실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 원격선교는 한국선교의 위기에 해당하는 요인들 가운데 해외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감소하는 경향은 물론 해외선교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나 갈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의 한계를 대처하는 방안이 된다. IT를 통한 사역은 국내에서 해외선교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이상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위한 대안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특별히 국내에서 해외의 선교현장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네트워크 할 때 시공간의 제약은 물론 언어와 문화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선교의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작업은 선교사의 파송이 감소되어도 선교사역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에 선교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닐 수 없다.

4. 단기 혹은 파트타임 선교 사역의 확대

한국교회가 한 생애를 해외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계속하여 증가시켜 나가는 일에 대한 한계를 예견한다면 단기 혹은 파트타임 선교사역을 확대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북미의

경우에는 이미 1985년의 통계로도 선교사의 42%가 단기선교 사역자 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장기 선교사의 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었다.[74] 1983년 당시의 수치를 보아도 53, 000명이 넘는 북아메리카 선교사들 가운데 1/3가량은 단기 선교사들이며, 항상 8, 500명의 단기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동시에 사역하고 있었다.[75] 이러한 경향은 "선교의 개념에 장기선교에서 단기선교로 혹은 비상주 선교로 바뀌는 시대의 추세와 관련이 있다."[76] 이러한 추세는 곧 한국선교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들에도 포함될 수 있다.

1) 단기선교 사역자의 정의

우선적으로 단기 선교사역자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짧은 기간 동안의 정탐여행(research trip)까지도 단기선교로 호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단체로 해외의 선교 현장에 한두 주간 보내는 경우에도 단기선교로 호칭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호중에 의하면 "단기선교는 지역교회의 헌신자들이 선교팀을 구성하여 1~4 주 정도의 짧은 기간 타문화권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77] 필자가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에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단기 선교사역자를 정의하는 데는 다른 견해를 가진다. 선교 사역의 기간과 거주 형태에 따라서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역자(short termers), 비 거주 선교사(non-residential missionary)로 나눈다. 선교지의 상황 때문에 현장에 머물지 못하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사역하는 사람을 비 거주 선교사라고 하며 부정기적인 방문이나 단기간 동안(3년 이하) 선교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을 단기사역자로 호칭한다. 따라서 단기

74)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8), 229.
75) C. Peter Wagner, On the Crest of the Wave(Venture, Cal : Regal Books, 1983), 154-155.
76) 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209
77) 조호중, 단기선교길라잡이(서울 : 요단출판사, 2004), 13-14.

사역자를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본다면 6개월 이하는 선교 여행, 비전 트립 혹은 정탐 여행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때로 6개월 이하라도 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는 그의 성격에 따라 단기 사역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78]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사역을 정탐여행이나 단순한 선교현지의 방문과는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단기 선교사역이 부상하는 경향

단기 선교사역의 경향이 일어난 배경은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 몇 가지로 압축해 보면, 먼저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으로 대두된 정치적이고 경제인 상황이 선교 사역에 위험과 곤경을 초래한 결과 단기 선교사가 해결의 한 방향이 되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의 실재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기도한 후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선교지에서 일생을 보낸다는 개념과는 달리 현장에서 경험을 가지면서 결정하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항공교통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단기 사역이 용의하게 된 것과도 관계가 있었다.[79] 이러한 경향 위에서 일어난 단기선교는 WCC와 IMC의 통합으로 WCC계통의 교회들 안에 차츰 선교사들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선교사의 공백을 채우는 방향에서 활용하였고 보수계통의 선교단체들도 차츰 단기선교의 가치를 높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단기선교 사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선교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여 오고 있다.[80]

---

78) 강승삼, op.cit., , 230
79)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서울 :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164.
80) Ibid, 165.

3) 단기 선교 사역의 장점들

단기 선교사역 사역의 장점들은 다양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장기 사역자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단기선교의 동기는 넓게 보면 단순히 선교활동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단기간이라도 활용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단순한 교제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단기간으로 선교 현장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여러 동기에서 단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 선교사역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81] 따라서 단기 선교사역은 "선교사의 모판"으로 불리며, 양질의 선교사를 발굴하는 과정이며, 선교의 열정을 단기에 불태울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82] 실제로 어떤 교파의 장기 선교사들 가운데 50%가 단기 사역자로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83]

단기 선교사역은 또한 전문인 선교사역의 활용에 더욱 용의한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 선교사보다는 전문기술을 가진 사역자들은 직업의 현장에 더욱 메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가진 전문성의 사역을 해외의 선교현장에 일정기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기 선교사역자로 활동하는 것이 더욱 용의하다. 따라서 전문인 선교 사역자들이 단기간의 사역에 투입되는 길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고도의 정보와 통신 수단이 발달한 21세기에는 새로운 선교전략에 의한 효과적이고 성숙한 단기선교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진다."[84] 전문인 선교사의 수요가 더욱 증가되는 때에 단기 선교사역의 형태와 접목하는 일은 현대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빙안이 아닐 수 없다.

---

81) 최수일, op.cit., 248.
82) 김수용, "전문인 선교와 단기선교의 연관성",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서울 : 도서출판 창조, 2000), 133.
83) J. Herbert Kane,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 480.
84) 김수용, op.cit., 132.

단기 선교사역은 현지 선교부나 교회에 사역의 결실을 일임하는 장점이 있다. 단기 선교사역에 나가는 개인이니 팀이 단기간에 사역한 결과는 지역 교회 혹은 현지에 장기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해외의 선교 현지에서 의료팀과 건축 팀과 전도 팀들이 협동 작전을 벌려서, 단 시일 내에 한 지역을 복음화하고 현지 교회에게 그 결실을 일일하고 돌아오는 것은 기동력을 가진 선교 방법이 아닐 수 없다.[85] 이러한 방법은 선교지 교회와 피선교지 교회와의 협력은 물론 피선교지의 교회와 현장의 선교사와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단기 선교사역의 또 다른 장점은 장기 선교사들로만 충당할 수 없는 사역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날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 교회개척과 복음전도 사역자들이었다. 그들의 사역으로 현지에 사역의 결과들이 뿌리를 내린 단계에서 현지에 많은 전문인들의 도움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모두 장기 선교사들을 충당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열정적인 단기 사역자들이 와서 요구되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것이다.[86] 따라서 "선교지역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전문사역 팀을 적절히 활용하여 장.단기 협력을 도모한다면 사역의 효과를 상승시켜 선교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얻을 수 있다."[87]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장기선교 사역자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현지의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사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선교 현지의 상황은 다양하다. 특수한 기후로 선교사가 장기적인

85) 이태웅, op.cit., 166.
86) Ibid, 170.
87) 강승삼, op.cit., 237.

체류가 쉽지 않는 곳이 있다. 또한 습지나 풍토병이 창궐한 경우에도 선교사의 장기적인 체류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지역은 단기 사역자들의 선교활동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88] 따라서 해외선교 현장의 다양성에 따른 선교사역의 가능성을 열어 가는데도 장점이 있다.

4) 단기 선교사역의 대표적인 유형들

단기 선교사역의 유형들은 다양하다. 이것은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개척 선교사역자들과 전문인 선교사역자들의 다양성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다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가진 전문성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OM국제선교회 대표인 김수용은 단기선교의 사례로서 의료진, 영어와 컴퓨터, 회계사 및 경리, 목수, 상담과 정신과 전문인 사역자들, 교사, 목사, 선교지에서 필요한 그 외의 다양한 직업들로 열거하였다.[89] 강승삼은 단기사역의 전략성과 관련하여 활용도가 높은 경우로 미전도 종족을 정탐하는 일, 농업개발(rural development), 현지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일, 지역사회의 보건개발(community health) 등을 추천하였다.[90] 그는 계속하여 선교지에 필요한 전문직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선교사 자녀 교사, 행정가, 컴퓨터 전문인, 건축가, 토목기사, 목공 기술자, 재봉사, 상업디자이너, 전공 교수, 의료인, 개발요원, 음악 지도자, 농업 기술자, 미용사, 전기 기술자, 제자양육 전문가, 어린이 교육 전문가, 기숙사 보모, 태권도 및 운동 전문가, 심지어 허드렛 일을 도울 사람.[91] 이상에서 열거된 직종들 외에도 선교현장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더욱 많은 종류들이 포함될 수 있다.

---

88) Ibid, 236.
89) 김수용, op.cit., 133-134.
90) 강승삼, op.cit., 236.
91) Ibid, 239.

5) 단기 선교사역이 한국선교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되는 이유

(1) 단기 선교사역은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대규모 선교전략이 된다. 또한 장기 선교에 비해 기동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기에 중・단기적인 선교전략을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92] 심지어 단기 선교사역자들 가운데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들은 직장을 은퇴한 후에 남아 있는 5년 내지 10년을 활동할 수 있는 세월을 선교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며 보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단기 선교사 기간을 늘이기 위해 미리 은퇴하기도 한다. 제2의 경력지향 자들로 알려지는 이들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지긋한 연령 자들은 몇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다....가족에 대한 책임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연금을 타고 있다....대게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의 유익들을 소유하고 있다...이들은 그들이 섬기는 선교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93]

(2) 단기 선교사역은 오늘의 젊은이들이 선호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교 인력의 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긴 기간 동안 한 가지의 프로그램에 붙잡혀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의 젊은이들에게 "단기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세계를 구경하고, 자신의 삶과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싶다는 정당한 열망을 만족시켜준다."[94] 따라서 이러한 단기 사역자들이 추가되면 "선교계의 중대 문제인 인력 결핍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95] 선교사역자들의

---

92) Ibid, 235.
93) J. Herbert Kane,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 476.
94) Ibid, 479.

계속적인 증가와 보충은 미래의 선교에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단기 선교사역자들은 큰 해결이 아닐 수 없다.

(3) 해외선교 사역의 재정적인 한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 선교사역자들은 사역의 현장에 장기로 지내기 때문에 더욱 고비용일 수 있다. 그러나 단기로 머무는 사람은 장기에 비하여 저비용일 수 있으며, 더욱이 단기 사역자들이 주로 전문인 사역자가 많은 경우에 현지에서 재정적인 요소를 다소 충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효과적인 대처의 방안이 아닐 수 없다.

Ⅳ. 나가면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세계선교의 역사에서 볼 때 단기간에 선교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시행착오의 문제와 여러 가지 비평적 상황에서 이미 위기론이 일어나기도 한다.

> 21세기 세계선교국으로 부상해야 하는 한국교회는 선교역사가 아직도 짧지만 많은 문제와 시행착오를 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두되는 선교의 위기론은 선교 무용론이나 부정론자들의 비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96]

이러한 위기론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선교사의 수를 유지하면서도, 저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현시대의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95) Ibid.
96) 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211.

대처하는 요소들이 감안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의 선교는 이주민들을 직접 국내에서 접근하여 사역하는 방법이기에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사역이기에 재정적으로도 줄여나가는 사역이 될 수 있다. 전문인 선교 역시 목회자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사역하기 어려운 지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전문기술의 사역으로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현지에서 재정적인 요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선교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닐 수 없다.

IT를 통한 선교사역을 활성화 하는 것은 미래의 선교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IT의 발전 상황은 국가 간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도는 제3세계 가운데서도 보편화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기술의 매체를 이용하게 될 때 반드시 해외선교의 현장에 파송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사역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현지화 된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네트워크하면 현지에서의 사역과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다가설 때 효과 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상당한 저비용의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단기선교 사역의 확대이다. 미래 선교에 큰 문제로 부상하는 것은 선교 사역자들의 인력난이다. 특별히 장기사역자로 종신토록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계속하여 발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단기간 사역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려는 인력들은 계속하여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사역은 선교 사역자들을 보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단기간의 사역이기에 재정적으로도 절약하는 전략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가 미래의 선교를 지속하는데 한계의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섬세하고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일을 더욱 신속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업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하나의 효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Bright, John, The History of Israel, London : SCM Press, 1959.

Cotterell, Peter, "The Church in Europe",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13(1), 1989.

Douglas, J. D., (ed.), The Lausanne Covenant,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sota :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Guder, Darrel L. (ed.), Missiob Church :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 Eerdmans, 1998.

Hedlund, Roger E.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5.

Kane, J. Herbert, The Christian World Mission : Today and Tomorrow,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1.

Kane, J. Herbert,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 신서균 역, 기독교 선교이해,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Nussbaum, Stan, A Reader's Guide to Transforming Mission, 최형근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가이드 북, 서울 : CLC, 1910.

Pate, Larry D., "The Changing Balance in Global Miss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New Haven : The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Apr., 1991.

Peters, George W.,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 Moody Press, 1972.

Stott, John R. W.,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London : Falcon Books, 1975.

Verkuyl, Johannes,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87.

Wagner, C. Peter, On the Crest of the Wave, Venture, Cal : Regal Books, 1983.

Wilson, J. Christy, Tent Maker, 김만풍 역, 텐트메이커, 서울 : 순출판사, 2003.

Winter, Ralph D., "Four Men, Three Eras, Two Transitions : Modern Missions",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ed.), Mission Perspectives, 정옥배 역, 미션 퍼스펙티브, 서울 : 예수전도단, 1999.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s People, Grand Rapids : Zondervan, 2010.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8.

김수용, "전문인 선교와 단기선교의 연관성",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 : 도서출판 창조, 2000.

김승연, 유럽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김승연, 21세기 한국교회 어디로 가나?,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김연종, "영상매체와 그리스도인", 총신대학교 부설 한국교회문제연구소 역음, 한국교회의 갈 길과 교회문화, 서울 : 여수룬, 1996.

김태연, "1910년 - 2010년 현대 에큐메니칼 선교의 흐름 평가 : 자비량 / 전문인 선교의 입장에서", 한국 선교와 신학 교육, 20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2010년 한국대회논문집 1, 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김한성, "21세기 지구촌 기독교의 선교적 특징", 선교와 현대 사회, 20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2010년 한국대회논문집 4, 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남후수, 미래의 세계선교 전략, 서울 : 프리칭아카데미, 2008.

문창선, "비정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역 파송", 박찬식, 정노화 편집, 21C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민요셉, "전문인 선교", 세계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 도서출판 횃불, 1995.

박영환, "한국선교의 대안적 방안으로 한국화(Korbalisierung)의 한국 선교", 한국 선교와 신학 교육, 20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2010

년 한국대회논문집 7, 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박요섭, “유비쿼터스 시대와 목회환경”,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방동섭,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10.
손윤탁,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 한국 선교와 신학 교육, 20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2010년 한국대회논문집 7, 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신경규, “전문인 선교의 신학과 전략”, 복음과 선교, 제11집,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고양 : 올리브나무, 2009.
유해근,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찬식, 정노화 편집, 21C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윤완철, “과학기술 시대와 교회”,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이복수, “선교에 대한 이해 재고”, 고신신학, 창간호, 부산 : 고신신학회, 1995.
이복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고찰”, 고신신학, 제10호, 부산 : 고신신학회, 2008.
이순홍, 지교회의 자국 내 외국인 선교전략,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09.
이영제, “인터넷 선교”, 강승삼 편,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 전방개척선교, 서울 : 한선협, 2005.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서울 :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전석제, “포스트모던 문화와 선교전략”, 한국연합선교회 편, 선교와 현대사회 (19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 논문집 4), 서울 : 미션아카데미, 2011.
전호진, “성장이 중단된 한국교회, 선교의 새 모델은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사 계속교육원, 제1회 여름목회자 아카데미 자료집, 1996.

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서울 : 성광문화사, 1993.
정기묵, “선교의 대상으로서 사이버 자아”, 한국연합선교회 편, 선교와 현대사회 (19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 논문집 4), 서울 : 미션아카데미, 2011.
조호중, 단기선교길라잡이, 서울 : 요단출판사, 2004.
최수일, 간추린 기독교 선교 역사, 서울 : 예영커무니케이션, 2003.
최인식, “21세기멀티미디어 시대와 교회”, 김석년 편, 21세기 한국교회를 가슴에 안고,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제임스 F. 엥겔, 우리버트 H. 노튼 저, 최한구 역, 매스컴 시대의 선교전략, 서울 : 신망애출판사, 1987.
하워드 A. 스나이더 저, 박이경, 김기찬 역, 21세기 교회의 전망, 서울 : 아가페출판사, 1993.

고용노동부 자료, 2011년 6월 현재.
통계청 자료(통계청 자료로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2012년 7월 31일 인용)
http://www.kcnp.com/new/viewer.asp?n=07
http://cafe358.daum.net/_c21_/bbs_print?grpid=IDOIb&mgrpid=&fldid=8XLw&dat...2012-07-27.
http://blog.naver.co./PostPrint.nhn?blogId=inyouwithyou&logNo=10074460284(2012년7월30일인용).